

고창군, 판소리 성지 '동리정사' 복원 추진

현재 박물관·미술관 노후화
신재효 선생 업적 계승 한계
군, 이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고창군이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을 복원하는 '동리정사 재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식 건축물인 판소리박물관 등을 이전한다. 사진은 고창 판소리박물관.

고창군이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동리정사'를 복원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고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판소리박물관 이전과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맡은 전북경제연구원이 '동리정사' 재현의 선결 과제인 '고창판소리박물관'과 '군립미술관' 이전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제철 박사는 "판소리박물관과 미술관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지난 건물로 공간 협소와 설비 노후화로 현대의 박물관과 미술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건물 증축과 설비 교체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대

한민국 판소리 역사의 중심지인 동리정사 재현을 목표로 한다면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1812~1884) 선생의 1만212㎡(약 4000여평) 고택을 복원하는 '동리정사(桐里精舍) 재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리정사는 동양의 세익스피어로 불리는 동리 신재효 선생이 낚따란 집을 자신의 호를 따서 그 안에 소리정을 만든 곳이다.

이후 최초 여류 국창인 진채선 등 정국의 소리꾼들을 불러 모아 숙식을 제공하며 판소리 사설을 일일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간이다. 현재는 사랑채 건물만 남

아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리정사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고 미래 가치다"며 "고창읍성 주변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동리정사 복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방안 논의

공론화 사전 준비위원회 출범... 다양한 의견 수렴
시, 143층 높이 익스트림 타워 등 개발계획 보류

전주의 노른자위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위 구성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꾸리고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를 가동한다.

사전준비위는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 김진욱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사전준비위는 위원 구성, 공론화 방식 결정, 주요 의제 선정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앞서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 계획을 내놔다.

세계 7위에 해당하는 143층(43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000세대 규모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자광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다고 제안서를 보류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는 만큼 준비위를 거쳐 공론화위원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혜 논란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광호농업상' 대상 이석변씨 희망나눔 성금 500만원 기탁

'한광호농업상' 대상을 수상한 이석변 전곡수박생산자연합회 회장이 지난 6일 정읍시에 희망나눔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한광호농업상'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광호농업상은 SG 한국삼공 산하 (재)한광호기념사업회와 고(故) 회장 한광호 박사의 농업보국 뜻을 계승,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업인과 학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기탁받은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기탁자의 소중한 뜻과 함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석변 전곡수박생산자연합회장이 지난 6일 정읍시에 희망나눔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 제공>



남원시가 지역 고교생 104명을 대상으로 핵심과목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고교생 104명 ' 으뜸인재 육성사업'

오늘부터 국·영·수 학습 지원

남원시는 고등학생들에게 복잡한 대학 입시정보와 대학진학의 핵심과목인 국어·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2020년 으뜸인재육성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는 올해 남원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정하고 일반계 고등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남원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달 대상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부족 과목과 희망 대학에 맞는 중점 과목을 분석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마쳤다.

봄방학 기간에 맞춰 10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유명강사를 초청해 대학 입시제도와 국·영·수 중점으로 학원교육을 지원한다. 이후 3월부터는 금·토요일을 활용

해 하루 4시간씩 국·영·수 중심의 학원교육을 이어간다.

남원시는 첫발을 내딛은 1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원사랑에(爰) 캠프'를 비롯한 진로와 전공을 찾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명문학원 강사진을 초청, 4차례 입시설명회를 연다.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전문가를 초청해 찾아가는 입시진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고3 학생 34명 중 2020년 대입전형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 7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등 26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며 "전체 학력수준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올해도 6억원 투입... 상품성 향상·브랜드화 기여

순창군은 올해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브랜드화를 위해 6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군비 58억원을 지원, 농가 소득 신장에 크게 기여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25개 품목, 156개 조직 및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포장재는 순창군 로고와 공동브랜드 '순창 울안애'를 의무적으로 사용,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도시민에게 순창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특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규모화를 위해 공선출하 방식을 통해 유통하는 품목은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며, 일반·계통출하 방식은 50%를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딸기·사과·블루베리 등 1차 농산물이다.

신청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공동선별출하조직 등 생산자 조직과 재배 농가로 오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